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5

MAY 2017
vol.29
MONTHLY MAGAZINE



압화 방수정 작가 | 작품 '자람'

5월은 만물이 성장하는 '자람'을 깨닫게 한다. 싹이 움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날 때까지 더디 시간이 가더라도 '자람'을 위해서는 느긋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사랑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로
사랑한 만큼 산다
그만큼
인생이다

박용재 시
'사랑은 사랑한 만큼 산다'
중에서 새터  이상현 쓴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추억이 꿈을
대신할 때
노인이 된다

소설가 이디스 워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지적 호기심을 보이며, 큰 일에 관심을 갖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바람직한 나이듦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고, 배우려는 열정이 없다면 빛나는 젊음을 유지하기 힘들다. 나이를 불문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젊음을 누릴 수 있다. 공자는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망령되고 생각만 있고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고 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한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젊음은 나이듦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여류소설가 시몬드 보봐르는 "사람은 호기심을 잃을 때 노인이 된다"고 했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추억이 꿈을 대신할 때 그때부터 노인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왕년에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는 과거의 성공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사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사람에 대해서건, 지식에 대해서건 호기심이 있어야만 배움에 발을 들여놓게 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그레이저 이매진엔터테인먼트 회장(68)은 어릴 적 열 살이 됐는데도 책을 못 읽고 학교 성적은 최하위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책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하며 궁금증을 풀었다. 머릿속 하얀 도화지 위에 끝없는 이야기를 그려나가며 세상을 배웠고 결국 '스토리텔링'으로 먹고 사는 영화업계에 뛰어들었다. '다빈치코드', '라이어라이어', '아폴로13' 등 굵직굵직한 할리우드 영화를 성공시킨 그는 '호기심 철학'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다른 자질처럼 꾸준히 호기심을 키우는 훈련을 하면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어요. 나의 취향과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는 새로운 배움을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녀라”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이다. 완전히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했을 때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가 나오듯, 자신과 동떨어진 분야에 대해 배울 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65세까지 채 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 이상 비어 있는 자신의 뇌가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하나니 그대가 여든 살이라도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늘 푸른 청춘이네!”라고 노래했다.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은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도전이다. 또 끊임없이 비우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삶 또한 배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늙음이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체의 늙음, 다른 하나는 영혼 또는 마음의 늙음이다. 주름진 얼굴은 세월을 비켜갈 수 없지만, 영혼과 마음의 젊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과거의 자신을
비우고,
새로움을 담는
과정 ‘배움’

무엇보다 인생을 가치 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배움은 중요하다. 배움은 세상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렇게 삶이 흥미진진할 때는 사람도 늙지 않는다. 또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게 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소속감의 욕구가 있는데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소속감이 없어지며 자칫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그런데 배움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호회 활동 등을 하다보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고 소속감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야말로 젊음의 묘약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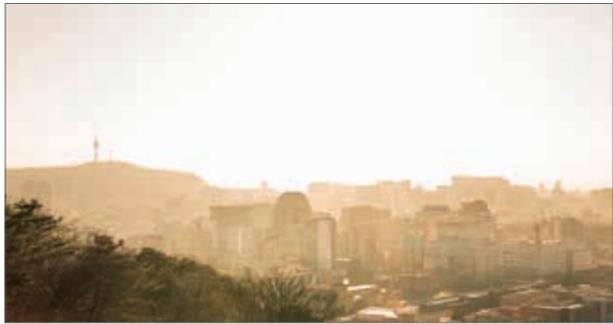
의미있게
산다는 것

단순히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에서 끝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배운 것을 활용해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겠다. 필자의 지인은 시니어채널에서 과거에 꿈꿨던 앵커로 활동하고 있다. 또 빼어난 손재주를 바탕으로 문화센터의 강사로 활동하는 이도 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된 시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배움을 통해 제2, 제3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설령 직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주는 봉사를 실천하는 것도 가치있는 활동이 아닐까. 봉사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이들도 많다. 배움, 그리고 의미있게 산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뒷받침된다면 삶의 행복을 일궈나갈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5월호 vol.29
MONTHLY MAGAZINE. MAY 2017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소남섭 시니어모델

대한항공 퇴직 후 시니어모델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시니어모델 소남섭 씨. 뒤통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찾고 꿈을 이뤄가고 있다. 키 180cm, 몸무게 74kg을 41년째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자신을 가꿔 나갈 뿐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는 데 주저함 없는 삶에 대한 적극성은 젊은이 못지않다. 지금,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소남섭 시니어모델을 만났다.

14

행복메신저 | 김명자 KEB하나은행 경주지점 차장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름답다! 테니스 선수, 여자축구 국가 대표를 거쳐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의 영업 베테랑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말은 일마다 성과를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매력'을 넘어 '마력'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무엇일까. 신라 천년 고도의 숨결을 간직한 경주에서 그녀의 일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26

Anti aging | 미세먼지의 습격 1급 발암물질을 피하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황사뿐 아니라 1년 365일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물 부족이 가져온 사막화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황사는 미세먼지와 결합돼 더욱 오염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4

연금 포커스 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화제다. 최근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이 가져 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험료 부담주체별로 살펴보고 제도 변화가 은퇴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

OPENING

- 01

02 **행복을 위한 질문**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INTERVIEW

- 08

08 **행복을 주는 사람**
당당한 모델 워킹으로 인생2막 열다

INFO GRAPHY

- 12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개인형 IRP 가입추이

행복미래설계

- 14

14 **행복메신저**
열정 엔진으로 '신뢰의 꽃' 피우다

- 16

16 **H씨의 행복설계**
축적된 금융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소득·화가 중요

- 20

20 **지식 플라자-세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세테크의 왕도를 찾아라!

- 22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개인형 IRP 가입대상 확대

- 24

24 **Bravo! My Life**
배움이 즐겁다! '문화센터'

- 26

26 **Anti aging**
미세먼지의 습격
1급 발암물질을 피하라

- 28

28 **Art In Culture**
생동감 넘치는 봄을 노래하는 클래식

연금이슈포커스

- 30

30 **연금 포커스 1**
30~40대, 노후준비를 위한 제언

- 34

34 **연금 포커스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 및 영향

경제 TREND

- 38

38 **경제 이슈**
美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동상이몽(同床異夢)?

- 42

42 **부동산 이슈**
사드 갈등,
제주도 부동산 시장 영향은?

GLOBAL

- 46

46 **지구인 이야기**
글로벌 이슈 '노인전문약사 제도'

FUTURE

- 48

48 **은퇴, 버킷리스트**
일상에 한번쯤 오토바이 여행을?



소남섭 • 시니어모델

당당한 모델 워킹으로 인생 2막 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을 느끼며 살다 보니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더군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대한항공 퇴직 후 시니어모델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시니어모델 소남섭 씨. 뒤늦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찾고 꿈을 이뤄가고 있다. 키 180cm, 몸무게 74kg을 41년째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자신을 가꿔 나갈 뿐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는 데 주저함 없는 삶에 대한 적극성은 젊은이 못지않다. 지금,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소남섭 시니어모델을 만났다.

영국의 인구 사회학자 피터 라슬렛은 ‘인생의 새로운 지도: 제3기 인생의 출현’에서 인간의 삶을 4기로 구분했다. 1기는 태어나서 취업할 때까지, 2기는 취업해서 퇴직할 때까지, 3기는 퇴직해서 건강할 때까지, 마지막 4기는 건강을 잃고 죽을 때까지이다. 이 저서에서 그는 특히 제3기 인생을 체계화하고 중요시했다. 자녀 부양에 대한 의무감, 직장에서 얻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제3기 인생에 들어서면 이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의 시기라고 말한다. 시니어모델 소남섭 씨도 이러한 특권의 시기를 제대로 만끽하며 오늘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른 데 눈 돌릴 여유 없이 살아온 게 대한민국 가장들의 삶이잖아요.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밤낮없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훌렀더라고요.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항공사 퇴직 후 모델이 되기까지

그는 대한항공에서 23년 근무 후 2009년 퇴직했다. 퇴직 후 모아놓은 자금으로 인터넷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촉망받는 벤처기업으로 마스크도 타고 잘 되었어요.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 정리 후 무기력한 생활이 이어지자 뭐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설문조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원은 지정된 사람들을 방문해 설문을 받고 설문지당 비용을 지급받는 형식의 일이었다.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시작한 일이지만 쉽지 않았다. 한 대기업 임원을 방문했던 일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차림새를 보니 이런 일을 할 것 같지 않다며, 왜 이런 일 하는지, 창피하지 않느냐고 직설적으로 묻더라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는 그다음 날 설문조사원을 그만뒀다.

“은퇴 후 건강한 시니어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화이트칼라 출신들은 훨씬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이명박 정부 시절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였던 ‘청춘다방’에 시니어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기회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청춘다방은 당시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대학교 내 커피숍에서 서빙도 하고 학생들에게 인생 상담, 진로상담 등을 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고민을 상담해오는 친구들이 없어 생각해 낸 것이 역학을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역학을 접목해 상담을 하고 싶었죠. 1년을 공부했고 자격증을 땀어요. 그 후론 연애상담, 진로문제 등을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줄을 섰고요.” 가장 인기 있는 ‘멘토’가 된 소 씨는 입소문이 나면서 나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방송사, 광고회사 등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나이 들어 모델로 산다는 것

소 씨는 현재 서울강남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모델이다. 2년 전 오디션을 통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젊은 모델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180cm의 훗칠한 키와 세련된 이미지가 높이 평가된 것이다. 틈틈이 실천해온 몸매 관리도 도움이 됐다. 모델 등록 후 소씨와 같은 이미지를 찾는 곳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소 씨는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시니어 남성정장 모델에서부터 노인 CF, 뮤직비디오 등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

모델 일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꿈을 꾸는 기분이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 누구에게 연락이 올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화보를 찍은 후 결과물을 보면 마냥 뿌듯하고 즐거워요. CF, 패션쇼, 토크쇼 등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이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는 “행복이라는 말도 부족하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인터뷰 당일도 광고 촬영으로 아침부터 오후 내내 촬영과 대기의 시간이 반복되었다. 길어지는 대기 시간에 지칠 만도 한데 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마냥 즐겁기만 한일이 이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방송과 기업 광고, 공공기관의 홍보에 노인의 등장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시니어모델을 찾는 곳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없는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가진 이미지와 주어진 주제에 잘 맞춰나가는 모델이 향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미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고요.” 이미 패션쇼 무대 경험도 있는 베테랑 시니어모델인 그는 올해 8월 유럽 4개국을 순방하는 패션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에 현재 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 회장직도 맡고 있다.

여전히,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의 활발한 활동 뒤에는 배움에 대한 열의, 성실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복지회관, 센터 등 인연이 닿는 곳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을 두드린 그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생 2막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시기죠.”

하나, 둘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니 그는 어느새 여러 개의 꿈을 실천한 시니어들의 귀감이 되는 은퇴모델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제가 치유 받는 기분이예요. 10년 후 정상급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한 인생설계를 걱정하는 이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뭘 해야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행복한 황혼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뭘 해야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행복한 황혼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개인형 IRP 가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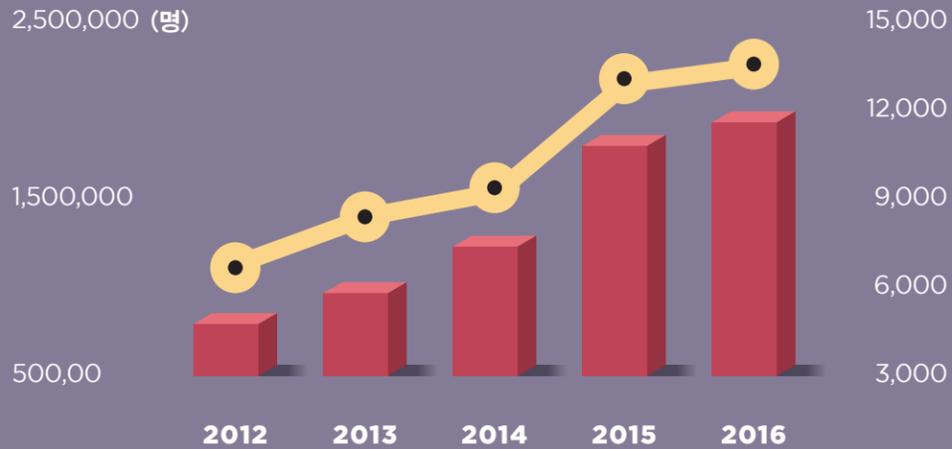
개인형 IRP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목돈마련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



1. 개인형 IRP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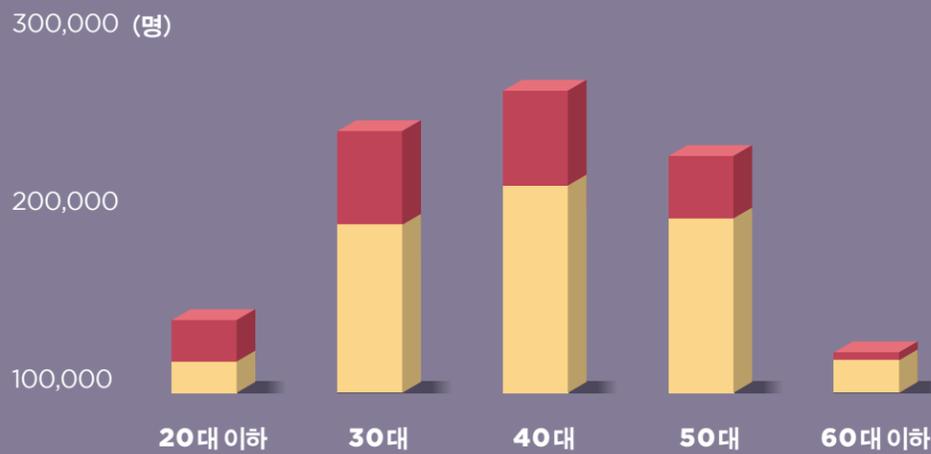
주 : 가입인원은 운용관리계약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납입액 (10억)
● 가입인원(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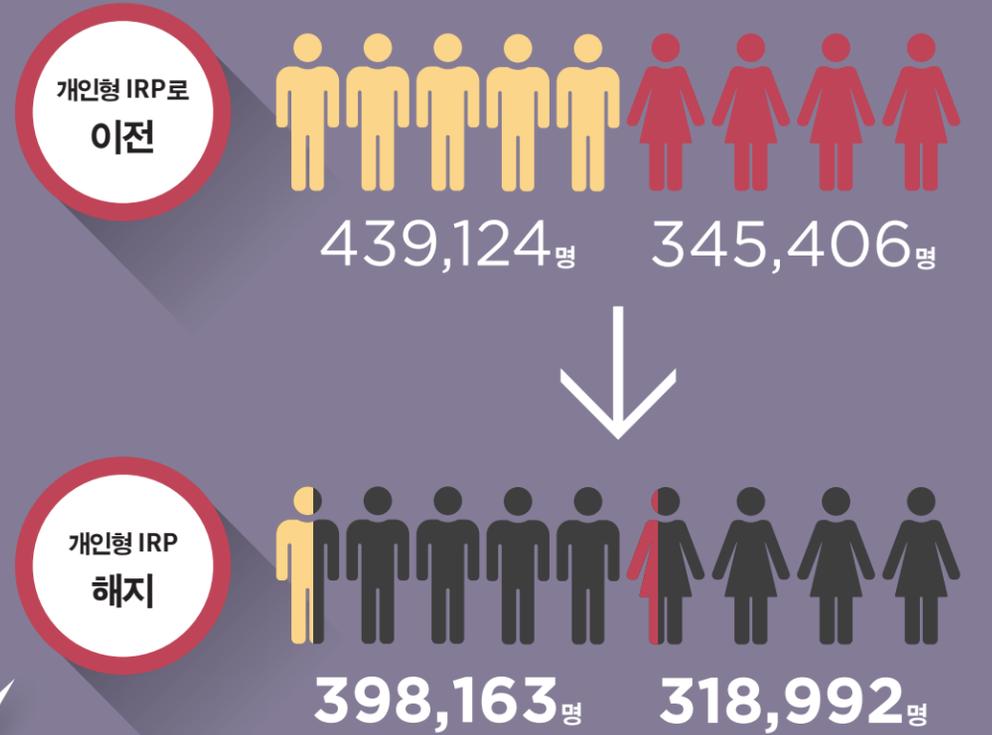
2. 연령 및 성별 개인형 IRP 가입

주 : 2015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3. 개인형 IRP 해지 및 해지사유

주 : 2015년 기준
자료 : 통계청



해지사유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한
목돈마련
53.8%



다양한
연금상품 부족
17.9%

낮은
연금액
15.4%

자료 : 보험연구원



열정 엔진으로 '신뢰의 꽃' 피우다

김명자
KEB하나은행 경주지점 차장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름답다! 테니스 선수, 여자축구 국가 대표를 거쳐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의 영업 베테랑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많은 일마다 성과를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매력'을 넘어 '마력'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무엇일까. 신라 천년 고도의 숨결을 간직한 경주에서 그녀의 일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행복메신저
팁

테니스 선수, 대한민국 여자축구 1기로 활동하던 김명자 차장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건 27년 전의 일이다. 선수 생활 마감 후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을 거쳐 남대문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은행 업무에 도전한 것이다. 현재 경주지점에 정착한 김 차장은 소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탄탄하고 폭넓은 인맥으로 VIP손님관리와 여신 업무에도 관여한다. 또 현재 N슈퍼스타로 활동하고 있다.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직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은행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 타인에 대한 존중, 책임감, 공정성, 친절, 구성원의 의무 이행이 인격을 이루는 6가지 기둥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는 데 손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넘어 마력의 서비스가 발휘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철학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진실이 담긴 꾸밈없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탁월한 세일즈와 서비스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손님의 자산을 항상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손님과 신뢰는 두터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 생활 등 다양한 사회 경험, 프로급 골프 실력은 폭넓은 인간관계, 영업력의 초석이 되었다. 특히 운동선수 시절 쌓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는 탄탄한 인맥의 기반이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빛을 발한다. 덕분에 선후배로, 술선수범하는 팀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채워나가고 있다. 그녀는 최우수지점의 자리를 단단히 한 경주지점에서 올 한해에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많은 여유자금을 갖고 계신 손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민을 상담하셨습니다. 먼저 손님의 여러 가지 고민을 다 들어본 후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어요. 외화를 통한 환차익, 주가지수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펀드 환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 만족해하셨습니다. 덕분에 기존의 자산보다 3배까지 타행에서 찾아오셔서 재테크를 맡기셨고, 철저히 관리해 드렸습니다. 지점이동을 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시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후관리 TIP

1. 건강이 최우선이다.

보다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최우선 조건이다. 건강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준비방법이다.

2. 현명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체력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하면 좋다. 노년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재무설계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 혜택은 물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세테크 연금저축을 좀 더 길게 넣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노년을 즐겨라.

남은 인생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적된 금융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소득화가 중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의 가족이 있다.

H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현재도 과소비 없이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의 은퇴 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생활을 할 계획이다.

또, 두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H씨에게 적합한 노후준비 전략은 무엇일까.



은퇴가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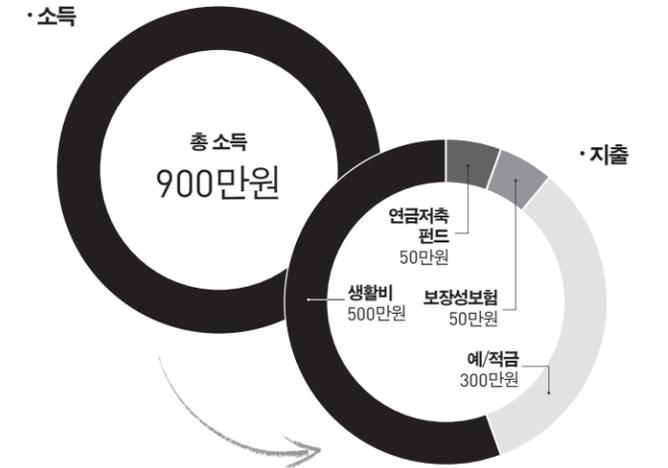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54세)는 가정주부인 부인(만 54세)과 슬하에 대학교 4학년생 자녀와 대학교 1학년생 자녀 2명이 있다. 현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1.5억원, 수익증권 2억원, 외화 0.6억원, 연금저축펀드 0.5억원이 있다. 별도의 부채는 지고 있지 않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900만원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500만원, 예/적금 300만원, 연금저축펀드 50만원, 보장성보험 50만원이 있다.

H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현재도 과소비 없이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의 은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할 예정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며, 두 자녀의 교육비(총 5,000만원 예상)와 결혼비용(총 4억원 예상)을 감안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3.0억 원
	연금저축펀드	0.5억 원
	외화	0.6억 원
	수익증권	2.0억 원
	요구불	1.5억 원
· 부채	-	-
· 순자산		7.6억 원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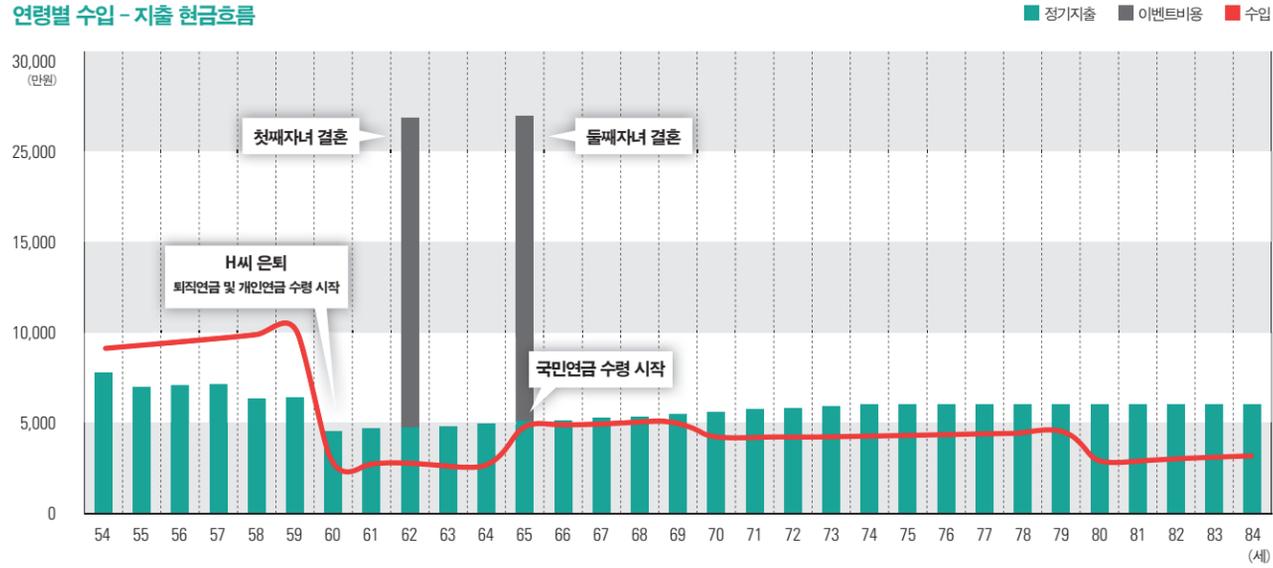
은퇴 후 자금 부족 상황을 대응할 필요

H씨는 60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H씨 가족은 생활비로 월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감안할 때 월 4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흐름 파악을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만 65세부터는 월 170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만 55세부터 20년간 월 169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만 60세부터 10년간 월 95만원을 수령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은퇴 전인 만 59세까지는 지속적인 여유 자금이 발생하여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나 은퇴 이후에는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며, 특히 만 62세와 만 65세에 각각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해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을 기존에 축적해 놓은 금융자산을 활용해야 하며,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운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금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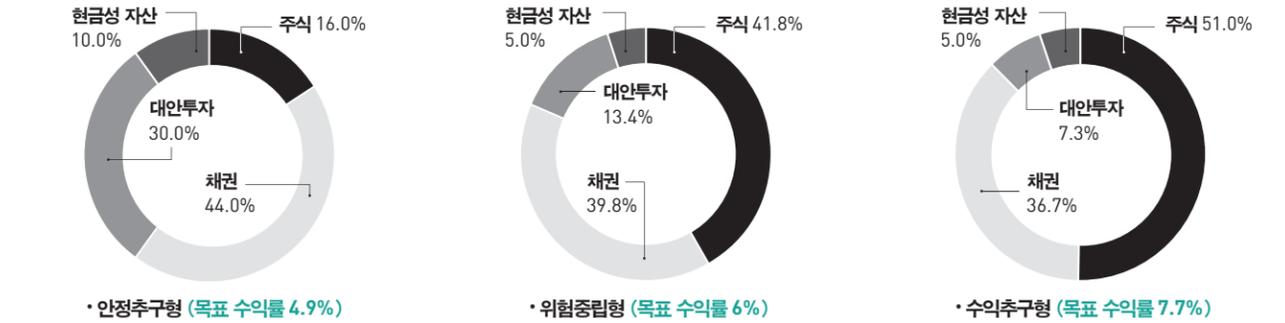
금융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PB 등 특화서비스 이용 권유

H씨가 현재 상황을 유지한 채 만 60세에 은퇴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활용은 필수이다. 앞서 수입-지출 현금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이후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만을 활용해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3.32%이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4.9%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H씨의 경우 부채가 없으며, 부동산을 포함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노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연금으로 충당 할 수 없는 지출을 금융자산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개인연금 수급이 끝나는 만 70세부터는 연 2,00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들어가며, 퇴직연금 수급이 끝나는 만 80세부터는 연 3,500만원 규모의 금융자산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자산 수익률 3.32%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출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 제시되는 목표 수익률이며, 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특히, 노후로 접어들수록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노후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비를 월 100만원씩 추가 지출하게 된다면 요구수익률은 3.22%에서 5.86%까지 높아진다. 이 경우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에서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6%)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되느냐 그렇지 않

느냐를 가르는 키포인트가 된다. H씨의 경우 많은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PB, WM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다면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더라도 적절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H씨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된 것이다. 만약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금융자산을 일부 상속하길 원할 경우 금융자산의 목표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 만약 추가적인 상속을 원한다면 더욱 더 정기적인 재무설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할 경우 금융자산만을 활용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자산(3억원 상당)은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증여하거나 은행의 신탁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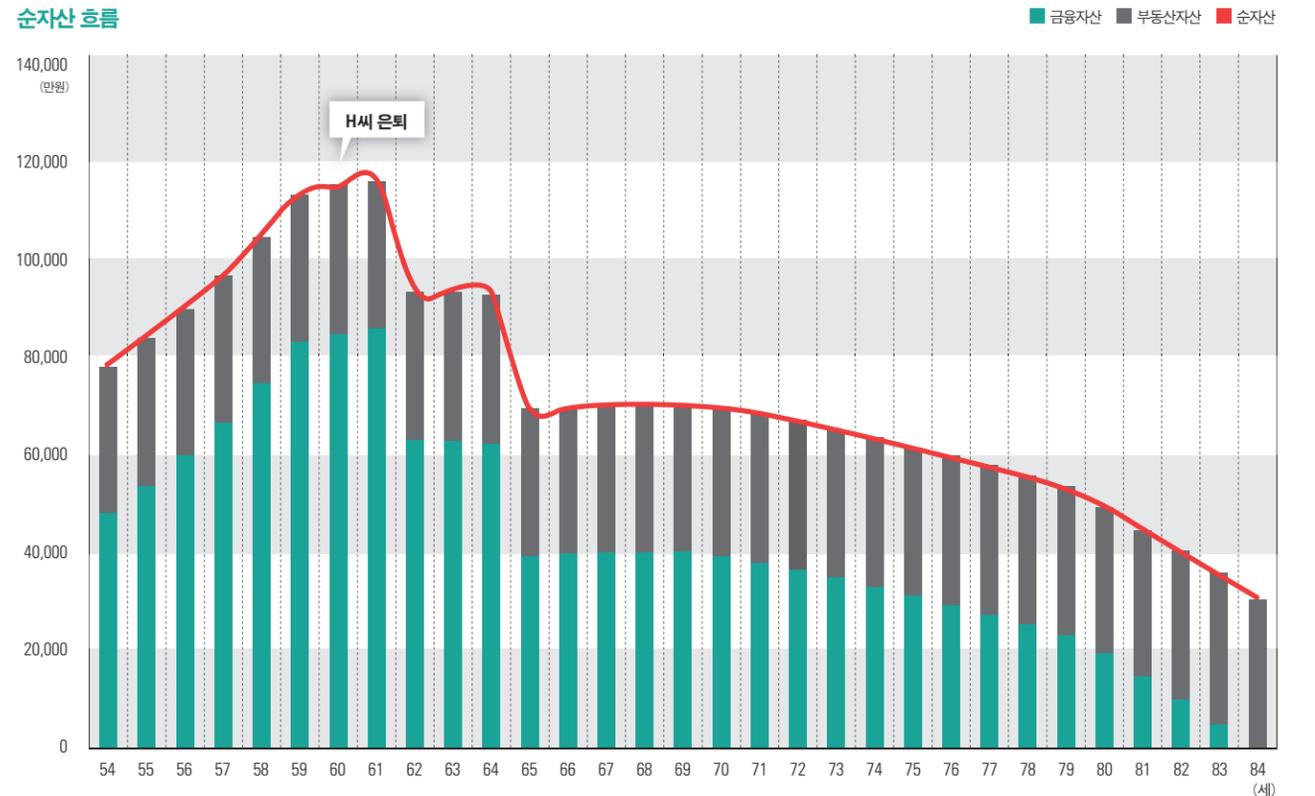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7.05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기적인 재무 설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지름길

H씨는 그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다. 또한, 취미생활 등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으며, 부채가 없고 3층 연금 체계를 잘 구축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적절한 운용만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에 예기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어 금융자산의 수익률 또한 유동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도 H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있어 핵심 포인트는 은퇴 준비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제고임을 항상 기억하자.

순자산 흐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세테크의 왕도를 찾아라!



홍길동씨는 아버지의 유고로 지방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는 취득할 수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경작한 농지의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어떻게? 만약 8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길동씨가 농지를 상속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직장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홍길동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아버지의 과거 상황과 홍길동씨의 현 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전략을 세워 보기로 한다.

상속농지 양도세 요약 : 상속 당시 평가금액(공시지가)이 1억원, 양도 시 3억원

	아버지가 8년 경작(요건 충족)		아버지가 8년 미만 경작		
	자녀가 경작하지 않음	자녀가 경작(통산하여 8년 이상)	자녀가 경작하지 않음	자녀가 경작하지 않음	자녀가 경작(통산하여 8년 이상)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감면	3년 이내 양도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감면	3년 후 양도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있음	5년 이내 양도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감면	5년 후 양도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있음	양도 : 3억 취득 : 1억 차익 : 2억 세금 : 중과

우선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면 홍길동씨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과세연도별 최대 1억, 5년간 통산하여 3억)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상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하라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은 아래 표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경작요건	취득 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계속 직접 경작할 것
농지요건	양도 당시 농지 일 것(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을 것)
자경요건	자경이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단,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제외함)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 이상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광역시 중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읍·면 지역은 제외)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배제한다.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이웃들이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만약, 홍길동씨가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아버지가 8년 경작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홍길동씨가 상속 받은 농지를 상속받은 날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본인의 경작 기간과 합산을 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홍길동씨의 상황에 따라 3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 이라면 어떻게? 홍길동씨가 현재 직업이 없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8년 경작기간을 채우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홍길동씨)의 경작기간과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러나 홍길동씨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상속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상속 농지의 경우 감면 혜택, 중과세 여부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경우의 수를 모두 비교하길 원한다면 지면을 통해 제시한 표를 참조하면 된다.

개인형 IRP 가입대상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하거나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인형 IRP는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근로자만으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IRP로 이전한 퇴직자들이 목돈 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면서 본래의 취지인 은퇴 후 연금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되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개인형 IRP가 국민들의 은퇴 후 연금소득원으로서 보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는 다가오는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가입대상자는 기존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근로자로 제한되었던 것을 자영업자,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퇴직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없었던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 등 4대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즉,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인형 IRP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포함) 소득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의 등도 연금의 수령 시까지 세금을 이연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인형 IRP 가입대상 확대 시행의 대상이 되는 은퇴준비자라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인형 IRP의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입할 때에는 가까운 금융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진단해 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가입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형 IRP 주요 내용 및 추가대상 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기존대상)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 - 퇴직급여 수령한 퇴직근로자 (추가대상)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지원 등 4대 직역연금 가입자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추가납입 가능 - 7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시)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연금수령 시 5년 이상)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9년부터 적용)

대폭 확대된 퇴직연금 세제혜택!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인 경우
- 13.2% 세액공제 적용시, 최대 92만 4천원 세액공제

세액공제 포인트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13.2% /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중립이 생명일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 시점에 투자대상, 환급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16-03094호(2016.02.01 ~ 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하나금융투자

배움이 즐겁다! '문화센터'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뜨겁게 보내고 있는 액티브시니어들.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최근 시니어 대상 강좌가 확대되면서 문화센터가 배움의 텃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생을 풍요롭게 즐겁게 꾸며 줄 시니어를 위한 문화센터 이색강좌.

#방배동 우연화(64) 씨는 시니어 모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작은 문화센터였다.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다가 '시니어 모델 되기' 강좌를 듣게 된 것이다. 평소 외모 가꾸기를 좋아해 '모델 한번 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들어오던 터라 관심이 갔다. 문턱이 낮은 문화센터의 강좌는 그녀의 남은 인생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덕분에 현재 모델로 등록해 활발하게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여행전문가 성신미(49)씨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여행 강좌를 열고 있다. 성씨는 "대부분의 수강생 모두가 60대에서 80대까지의 시니어들"이라며 "여행을 통해 도전과 재미를 찾으려는 시니어들의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센터 강좌가 다양해지고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는 50대 이상 고객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강좌 수도 지난해 대비 증가한 추세다. 강좌 성격도 다양하다. 꽃꽂이, 요리 등 젊은 여성들의 취미 생활 위주였던 기존 강좌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창업 멘토링, 시니어 모델 준비, 시니어를 위한 배낭여행, 귀농귀촌 등 시니어를 겨냥해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다.

최근 인기 있는 시니어 강좌는 '모델 준비과정'이다. 시니어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특별한 삶을

누리려는 의지가 높다. 덕분에 연륜이 묻어나는 세련됨, 나이에서 풍기는 독특한 개성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니어 모델이 인기다. 시니어 모델은 매혹적인 제2의 직업으로 도전하거나 여가활동으로도 손색이 없다. 건강관리, 몸매관리의 일환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필라테스, 요가'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던 필라테스가 순발력, 지구력, 근력, 유연성이 필요한 시니어들에게도 인기다. 시니어 필라테스는 일상생활에 맞춘 운동요법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특히 나이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적격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와 함께 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과거와는 달리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백화점 업계도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내놓으며 새로운 직업이나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대상 강좌들은 각 백화점 문화센터 사이트에서 강좌검색으로 지점별 강좌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천 시니어 강좌들



영국 프랑스 배낭여행

배낭여행에 대한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다. 패키지여행을 주로 활용하던 시니어들은 요즘 거리가 멀더라도 여행지를 직접 선택해 떠나는 배낭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로 동유럽권을 포함한 유럽과 미주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랑스, 영국 외에도 다양한 나라의 배낭여행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 필라테스, 요가

평균수명이 건강 수명이 될 수 있도록 근력과 지구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니어 필라테스, 요가'가 인기다. 특히 필라테스는 육체적으로 강화시킨 몸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높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 다양하게 진행한다.



시니어 모델에 도전한다!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와 함께하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강좌가 인기다. 주로 시니어 모델 입문을 위한 강좌로 기본 모델 자세부터 워킹, 포즈까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 마련됐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서 시니어 모델 강좌를 앞 다퉈 실시하고 있다.



시니어 코디법

최근 시니어들은 패션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가꾸기도 한다. 시니어코디법은 패션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계절별 멋스러운 패션 팁을 공유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멋스러운 시니어 코디법을 통해 여러 패셔니스타들의 멋스러운 패션연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습격 1급 발암물질을 피.하.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황사뿐 아니라 1년 365일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물 부족이 가져온 사막화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황사는 미세먼지와 결합돼

더욱 오염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에 불과하지만,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치명적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결막염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미세먼지는 코를 통해 뇌 속으로도 들어가는데, 뇌 안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뇌졸중 위험도를 높인다.

심해지면 치매 등을 유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동감 넘치는 봄을 노래하는 클래식

따뜻한 햇살 아래,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는 새들과 부드럽게 흐르는 맑은 시냇물.

갑자기 몰아친 소나기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이윽고 드리워지는 빛에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한 봄의 노래를 시작한다. 비발디 사계 '봄'의 한 장면이다. 잘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 '봄'이외에도

봄의 선율을 아낌없이 담아낸 봄의 클래식은 우리의 봄을 풍성하게 한다.

슈베르트 봄의 믿음

'부드러운 바람이 눈을 떠서/밤낮으로 살랑이며 불어온다/만물에 끝맺음을 짓는다/오 신선한 향기, 새로운 소리/이제 가련한 마음이며, 불안해하지 말아라/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날마다 세상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슈베르트의 가곡 '봄의 믿음' 중의 한 장면이다. 봄의 신앙이라고 번역되는 이 작품은 결국 봄은 오고 말리라는 믿음을 표현한다. 독일 낭만주의 시인인 루트비히 울란트의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작품으로 노래를 음미하다 보면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임에 틀림없고(muss),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며(wird), 꽃의 피어남은 끝이 없을 것(will)이라는 '미래'와 '확신'이 담긴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때론 달콤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이 묻어나는 선율이 인상적이다. 가련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어두운 단조로 바뀌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봄을 노래할 때는 계절에 대한 환희와 기쁨, 믿음이 일종의 종교적 신앙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클라리넷, 플루트, 피콜로, 트롬본 등 관현악의 박력적이며 전위적인 합주가 인상적인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작품은 스트라빈스키가 꿈에서 본 원시 종교 제전이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곡을 감상하는 내내 원시주의의 원초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하다. 이 곡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1913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될 당시 지나치게 과격적이고 난해했던 나머지 항의하는 관객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클래식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회자되는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바로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다. 쉽게 흘러가는 음악으로 듣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발레 음악으로 작곡된 작품인 만큼 발레공연과 함께 음악을 감상한다면 그 내용이나 흐름을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중 5번째 곡으로 알려진 '봄'은 대표적인 봄의 클래식이다.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되는 이 곡은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는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감미로운 선율을 듣게 되는 순간 '진짜 봄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작품은 그가 청력상실의 위기를 겪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작곡되었다. 음악가로서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희망의 선율을 통해 베토벤 스스로가 위안을 얻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이 작품은 원래 '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도입 선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유려함, 활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F장조, op. 24'라는 원래 이름보다 '봄 소나타'라는 이름이 더 많이 통용된다.

멘델스존 무언가 봄의 노래

봄의 노래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의 환희를 표현한 곡이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풀밭과 그 위에 핀 앙증맞은 작은 들꽃들, 따뜻한 봄바람에 꽃잎 나부끼는 거리, 초봄의 바다까지 떠오르게 하는 이 작품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제2권(op.30)의 여섯 번째 곡이다. '무언가'란 이름 그대로 말없는 노래를 뜻한다. 멘델스존은 15년에 걸쳐 6곡씩 수록된 8권의 무언가를 만들었다. 대부분 가곡 풍의 선율과 간단한 반주로 되어 있다. 봄의 노래의 흐르는 듯한 낭만적 선율은 봄을 느끼며 즐거운 미소를 짓게 한다. 특히 반주부와 페달의 움직임은 낭만주의 피아니즘을 담고 있다.

30~40대, 노후준비를 위한 제언

최근 30~40대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인생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쌓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의 마련, 자녀 교육비 준비, 부모세대의 지원 등 지출이 많은 시기가 30~40대 무렵이다. 노후를 위해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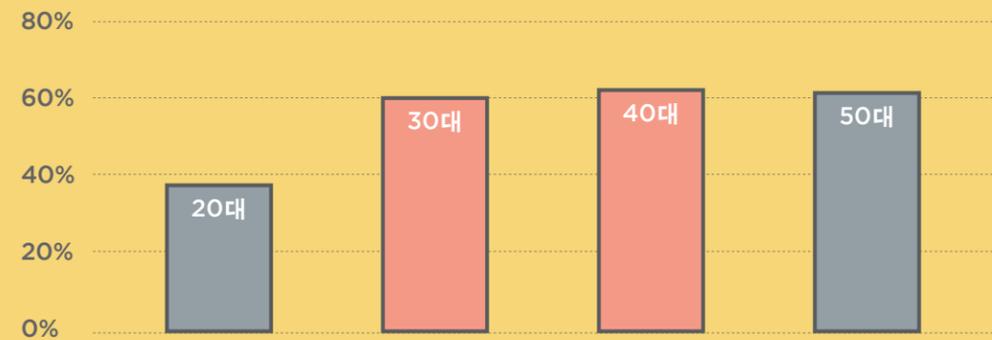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고령층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연금 제도의 짧은 도입 기간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노후 빈곤율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층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노후준비 초년기에 해당하는 30~40대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40대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시작해 인생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쌓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의 마련, 자녀 교육비 준비, 부모세대의 지원 등 이래저래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30~40대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0~40대 연금가입, 3층 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가입이 크게 미흡

30~40대의 노후준비상황을 보면 우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별 인구대비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률은 평균 59.9%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타 연령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연령대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3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8.8%를 기록해 40대의 61%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가입상황을 보면 세대별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평균적으로 가입률이 18.9%p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30대의 가입률이 79.7%로 40대의 78%에 비하여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60~80%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실직, 휴직 등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전업주부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40대의 공적연금 가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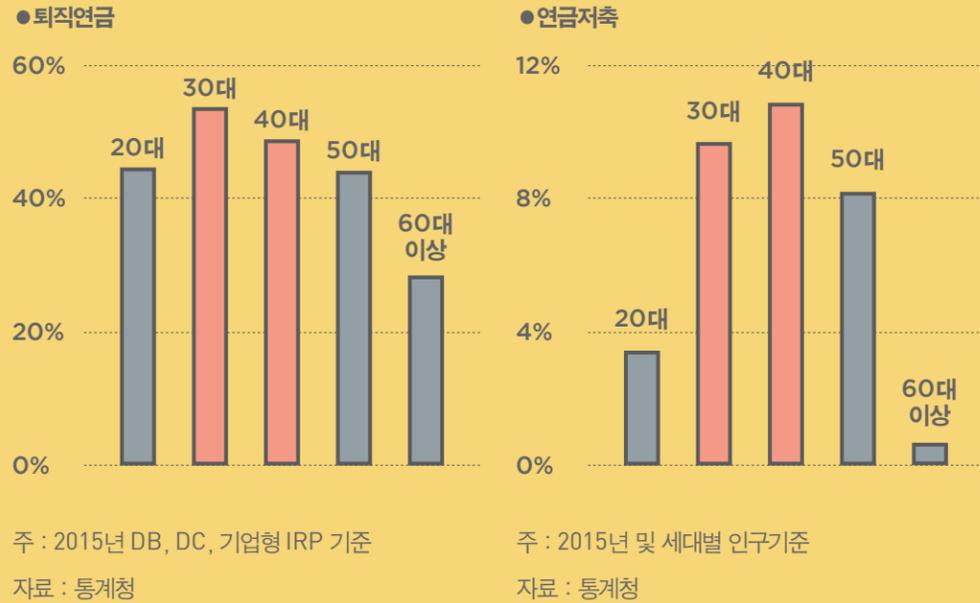
주 : 2015년 기준 세대별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 국민연금, 통계청

한편 30~4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퇴직연금은 평균 51.9%, 연금저축은 10.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30대가 54.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4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기부담이나 이직 및 퇴직 시 발생한 일시금을 이전하는 개인형 IRP의 경우도 연령대별 가입자의 점유비율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28.6%,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30~40대에서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50대 및 60대가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저축의 30~40대 가입을 세대별 인구대비기준으로 보면 40대가 1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서 30대가 9.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대비 가입률의 경우도 30대와 40대가 각각 15.5%, 20.8%로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30~40대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타 연금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라이프사이클 상 주택자금의 마련, 자녀 교육비 지출 등 경제적인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40대의 사적연금 가입 상황



가급적 빨리 3층 연금부터 가입해야

30~40대의 노후준비는 우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을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0~40대들의 3층 연금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50%내외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층 연금의 가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입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증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화시까지 세금부과를 이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가입은 물론이고 자발적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 하에서 세제혜택을 보유한 연금저축 상품만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금상품 등의 가입을 가급적 빨리 시작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복리효과로 인하여 그만큼 적은 저축으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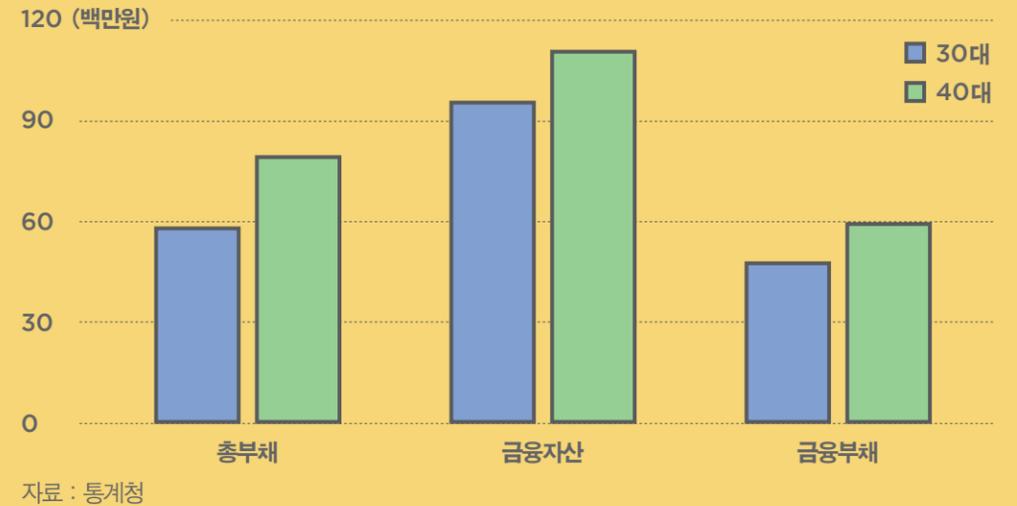
종합적 부채관리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준비

30~40대 시기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자산 등을 축적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라이프사이클 상 부채의 이용이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부채의 적절한 수준과 구조를 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금융부채의 규모는 30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40대에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에



비하여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시기에 금융부채의 규모 및 구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금융비용의 절약은 바로 자산축적을 위한 시드머니 마련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30~40대들은 자신의 주거례 금융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모든 금융부채 상황들을 점검하고,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갑작스런 유동성 필요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유동성이 준비되어 있다면 갑자기 유동성이 요구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 노후를 위해 준비해 뒀던 각종 연금이나 보험상품 등을 해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노후준비과정에서 유동성 준비 미흡으로 인해 연금상품이나 보험상품 등을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의 준비는 통상적으로 월 소비지출의 3~6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한다.

30~40대 가구의 부채 및 자산



현재 적립하고 있는 연금자산의 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30~40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재 적립하고 있는 연금자산 등의 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이나 IRP, 연금저축 등의 적립금은 자신의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 소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규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경우 41%가 가입시점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적립하고 있는 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래 자신의 노후생활시 안정적인 연금소득의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30~40대 노후준비 세대들은 노후를 위하여 자산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립된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적립된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화제다. 최근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이 가져 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험료 부담주체별로 살펴보고 제도 변화가 은퇴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17년간 유지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2016년 중에만 해도 건강보험료의 불공평성에 대해 약 6,70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일원화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제정된 부과체계가 별다른 개선 없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개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1단계는 2017년 7월에 시행되고 4년 후에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험료 부담주체별로 살펴보고 제도 변화가 특히 은퇴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문제점	개편 방향
직장가입자	- 보험료 상한 장기간 고정 - 보수 외 소득 연 7,200만 원 이하, 고소득자라도 보험료 부담 없음	- 보험료 상한 현실화 -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적정 부담
피부양자	-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대상자가 넓음 -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각 4천만 원/년 보유자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 - 고액재산가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	- 피부양자 기준 강화 (대상자 축소)
지역가입자	- 성, 연령별 차등 보험료는 설득력이 없음 - 재산·자동차는 중복 부과 -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낮아짐 (역진적) -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과다 - 자동차 보유만으로 보험료 부담	- 평가소득 폐지 (소득보험료 비중 상향) - 재산·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

자료 : 기획재정부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먼저 직장가입자 측면에서는 보수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적정 부담을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일정 보험료율(2016년 기준 6.12%)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임대·금융소득 등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일정 보험료율(2016년 기준 3.06%)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7,200만 원 이하이면 전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7,201만원이면 월 18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1단계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단계에는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까지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보수 외 소득에 해당 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율을 곱하는 공제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이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보험료 상한선이 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 수준으로 주기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부과체계가 변경되면 현재 13만 명에 불과한 추가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가 26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측면에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 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피부양자로 적용되는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득 4,000만 원, 연금소득 4,000만 원, 근로+기타 소득 4,000만 원으로 최대 1.2억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과표 9억원(실거래가 약 18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향후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고소득 피부양자는 그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먼저 소득 측면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피부양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1단계에서는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단계에서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되어 연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 측면에서도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도 일정 기준(1단계 5.4억원, 2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도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기존 피부양자 가운데 36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보험료를 30% 경감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보충 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 출생이나 연령 상향등으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 각종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고소득 피부양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는 먼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즉 현재 종합과세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1단계 연간 100만원, 2단계 연간 366만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재산과표 1,200만 원 이하 재산에 한해 5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해 주고 4,000만 원 이하 전월세에 대해서는 재산 보험료를 면제한다.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는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는 30% 인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및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현재는 20%만 소득으로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반영률을 30%(1단계), 50%(2단계)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가입자는 593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인상되는 가입자는 32만 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할 필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크게 저소득층의 부담 축소와 고소득 은퇴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고소득 은퇴자의 정의이다. 보통 고소득 은퇴자는 임대수익이나 기타 금융소득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령층을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소득 또한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 중 연금소득자는 60%인 170만 명에 이른다. 모든 연금소득자가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종합소득과세액 2,000만원의 기준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에는 상당수의 연금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연금소득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1단계 30%, 2단계 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그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도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향후에는 5.4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은퇴 생활자금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건강보험료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고 연금 가입 시점에서부터 부부 간에 연금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

자격 요건	부과 기준	현행	개편		영향
			1단계(2018년)	2단계(2022년)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7,200만원 초과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13만 세대 추가 (+13만 원)
피부양자	소득 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한 항목이라도 4,000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 기준		32만 세대 추가 (+5.5만 원)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과표 9억원 초과 재산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 보유		32만 세대 추가 (+5.5만 원)
			과표 5.4억원 초과	과표 3.6억원 초과	

자료 : 보건복지부

美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동상이몽 同床異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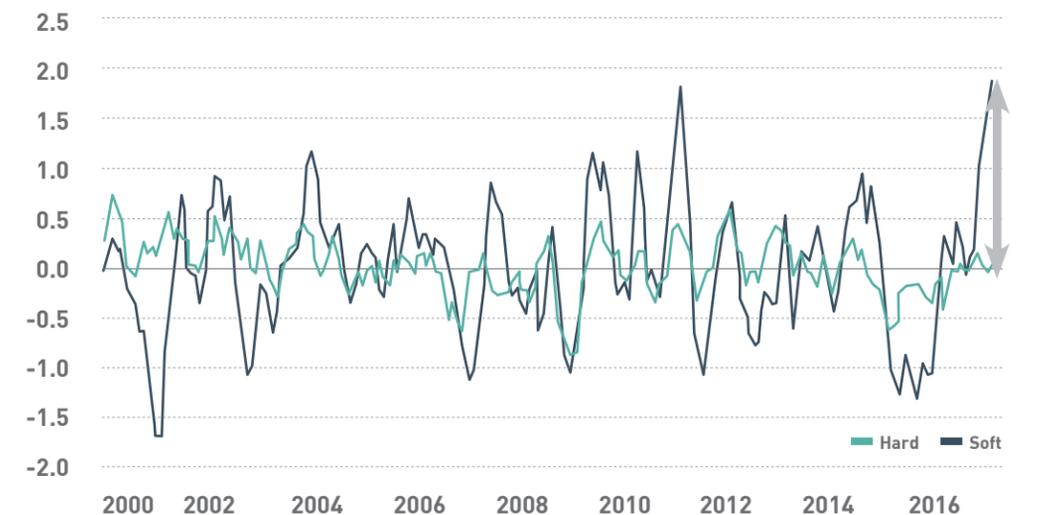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현 상황진단과 미래 경제 성장 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데이터의 불안정성은 경제정보의 왜곡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美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간의 격차 확대

경제 데이터는 현재의 경기여건을 판단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제 데이터는 크게 심리지표(Soft data)와 실물지표(Hard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 데이터는 기업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현재 및 미래 경기 인식을 서베이에 기반하여 작성한 일종의 심리지표이며, 하드 데이터는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실제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실물지표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 완화, 재정확대(감세, 인프라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소프트 데이터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미국의 하드 데이터는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격차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차별화 및 그에 따른 경기 판단과 경제 전망의 혼란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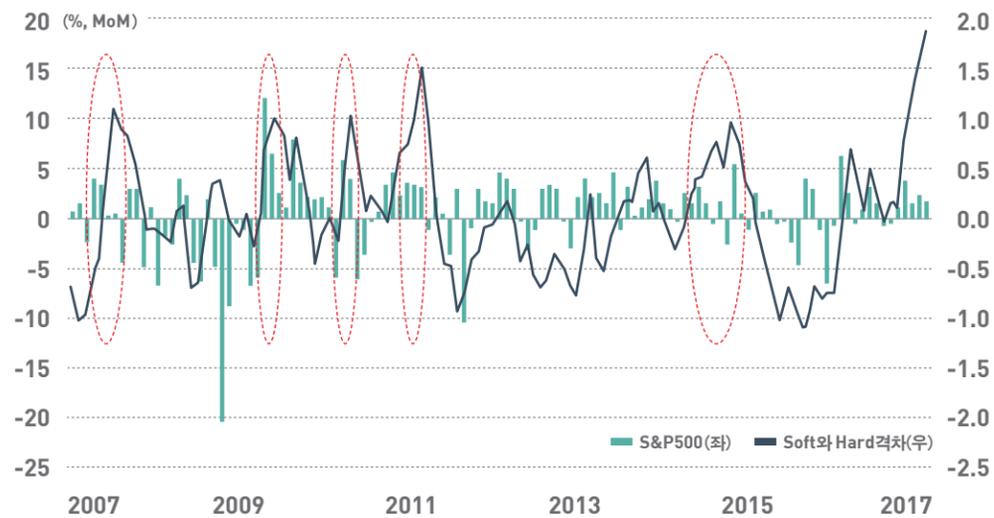
주 : 블룸버그 서프라이즈 지수 기준(하드 데이터는 실물 부문 평균)
자료 : Bloomberg

소프트 데이터는 속보성 및 선행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활용

소프트 데이터는 GDP를 구성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드 데이터의 경우 통계 발표 시점이 실제 경제활동 시점을 지나서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여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프트 데이터는 그 시차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시간(real time)으로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소프트 데이터는 새로운 정책 발표나 경제내 충격 발생시 그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평가 및 인식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경제주체들의 평가와 정책 방향의 일치 여부는 정책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경제 충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인식 역시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마련에 유용할 수 있다.

더욱이 소프트 데이터가 기대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가와 소비자가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기대심리가 높으면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동은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소프트·하드 데이터 간의 격차와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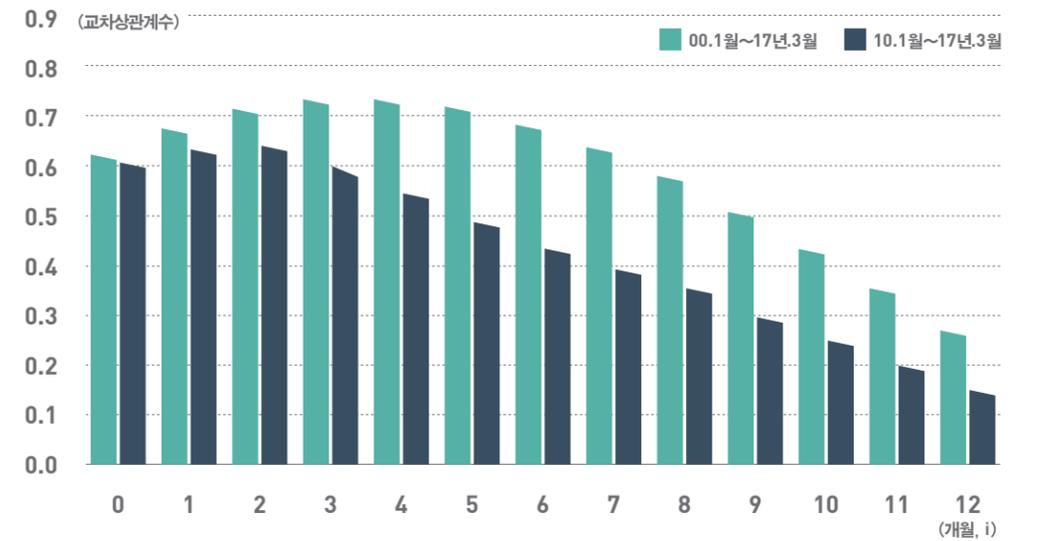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소프트 데이터의
고변동성 속에
경제 정보의
왜곡 가능성 잠재**

이러한 소프트 데이터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불완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실제로 블룸버그 서프라이즈 지수의 하드 데이터 변동성(표준편차)은 0.27이지만 소프트 데이터의 변동성은 0.65로 2배를 넘어서다. 이러한 고변동성을 감안할 때 소프트 데이터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소프트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기여건을 판단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특히, 지금처럼 소프트 데이터가 일방적인 호조를 보이고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소프트 데이터에 의존하여 예측이 이루어질 경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St.Louis 연은의 분석 결과, 하드 데이터를 이용한 미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머무는 반면, 소프트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률 전망치는 4%대를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경기 판단 및 성장 전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소프트 데이터의 일방적인 상승은 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JP Morgan)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경우를 살펴보면 美 주식 수익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SM 지수와 산업생산 증가율의 교차상관분석



주 : t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t-i기 제조업SM 지수의 교차상관계수

자료 : Bloomberg

다만, 금융위기 이후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약해지고 있어 하드 데이터의 반등압력 약화될 소지에 유의하는 가운데 소프트 데이터의 급변 가능성 및 조정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하드 데이터
간의 격차 축소가
예상되나 그 과정에서
변동성 위험에 유의**

소프트 데이터의 선행성을 감안할 때 하드 데이터의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SM 지수와 산업생산 증가율 간의 교차상관계수(2000년 1월~2017년 3월 기준)를 살펴보면 약 3~4개월 정도의 선행성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견조한 고용여건 속에 소비 및 투자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력도 점차 하드 데이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2/4분기부터는 1/4분기의 계절적(한파) 요인이 소멸되면서 성장률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프트 데이터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기대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하드 데이터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는 4월 들어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기업 관련 소프트 데이터에도 조정압력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 데이터의 특성 및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어느 한 데이터의 일방적인 조정보다는 두 데이터 모두 조정을 거치면서 그 격차가 축소될 공산이 크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약해지고 있어 하드 데이터의 반등압력 약화될 소지에 유의하는 가운데 소프트 데이터의 급변 가능성 및 조정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드 갈등, 제주도 부동산 시장 영향은?

사드 여파가 제주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사드 갈등으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과잉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가 겹치면서 제주도 호텔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시장은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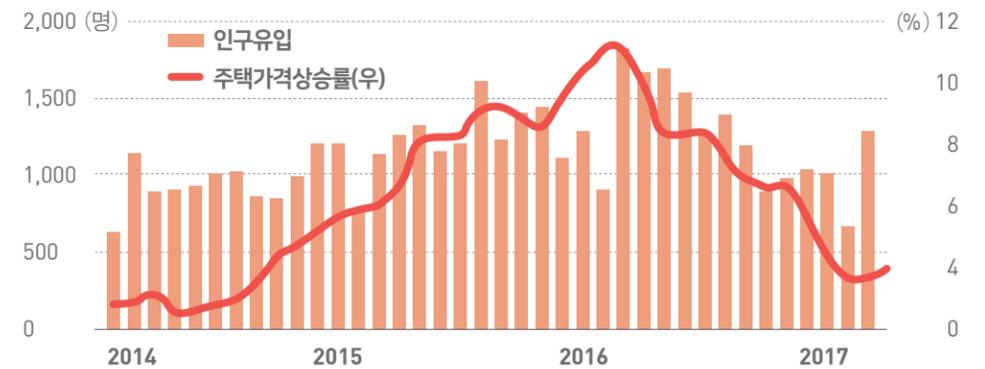


사드 갈등으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안감 확대

사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명동, 동대문 등 서울의 주요 상권과 함께 중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상점, 면세점, 호텔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주에서 진행 중인 대형 외국인 투자사업 24개 중 19개를 중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호텔과 상가 외에도 최근까지 호황을 보였던 주택 시장까지 사드 여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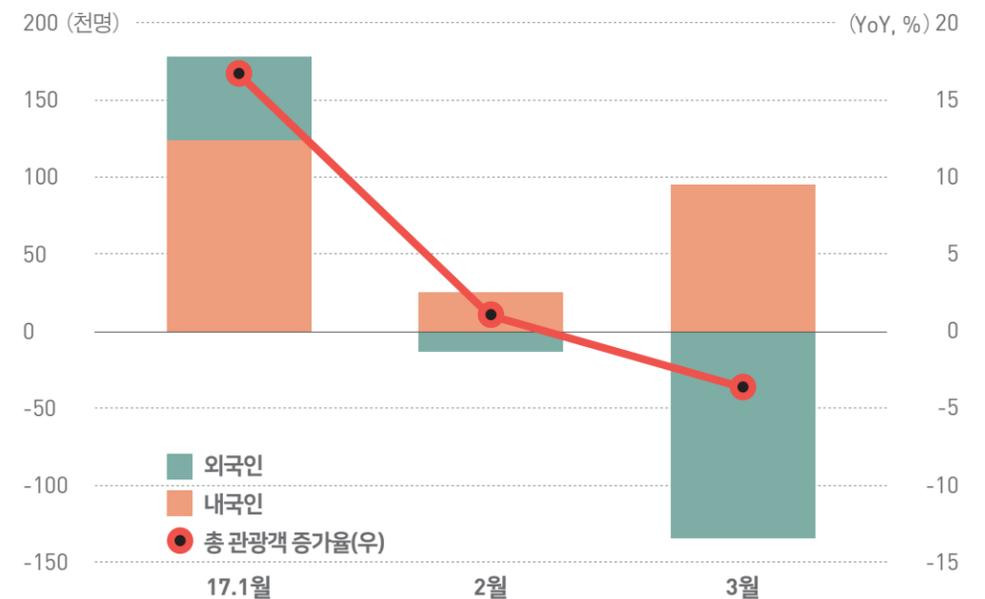
제주도 인구와 주택가격 변화

자료: 통계청, KB국민은행



제주도 관광객수 증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공급과잉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가 겹치면서 호텔업계 타격 불가피

사드 사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은 호텔시장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조치로 여행객 규제를 제일 먼저 꺼내들었거니와, 중국 방문객 증가에 기대 최근 호텔 공급을 크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2013년 1.6만실을 약간 넘는 제주도의 관광숙박시설은 2016년 상반기 말에는 2.7만호까지 늘었다. 공급 증가로 제주 관광호텔의 가동률은 2013년 79%에서 2016년 상반기 64%로 낮아졌다. 게다가 비즈니스호텔 객실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제주도 방문이 3월 이후 급감하면서 위기감은 한층 높아졌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숙박객 유치를 위해 호텔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이익 감소 속에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

상가시장은 제주시 등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타격

호텔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동산은 상가이다. 중국 관광객 주요 소비지인 제주시의 경우, 중국 방문객이 상점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호텔에 비하면 중국인 의존도가 낮지만 중국 관광객의 씀씀이가 큰 터라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바오젠거리를 포함, 제주도내 주요 상권은 최근 3년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바 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연체와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시장 영향은 미미, 관광사업의 전반적 위축 여부가 관건

주택시장은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이 제주도 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750억원 가량이다. 아파트가 206억원, 단독주택이 330억원, 기타 주택이 216억원 정도이다. 한국감정원의 2016년 말 제주도 평균 주택 가격(2.2억원)과 2015년 제주도 주택수를 이용해 제주도 주택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약 51조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제주도 주택 시가총액의 0.15%에 불과한 셈이다. 다만, 사드갈등이 장기화되어 제주도 관광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광산업은 제주도 부가가치의 12%, 최근 5년간 제주도 고용증가의 35%를 담당했다. 관광산업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제주도민이 소비도 늘리고 주택도 매입한 셈이다. 제주도 주택시장이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2016년 3월 제주도 주택시장의 전년 대비 가격상승률은 9%에 달했지만, 2017년 3월에는 2.3%까지 낮아졌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혜택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예금보통금리가 다르며, 모든 인구는 한 은행에 있는 계좌의 모든 예금으로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차원입하여 1인당 1회고 혜택이 가능하며, 1년제에 한함. *이 혜택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내망 사용자 상용실용서 또는 사내망 사용자 홈페이지(www.kebchi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십시오. *본업권사인 2015.09.30~2015.09.30



global issue

글로벌 이슈 '노인전문 약사제도'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만성질환의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은 전문약료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약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하고 질 높은 삶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전문약사는 쉽게 말해 노인의 약 복용을 전담 관리하는 약사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맞는 약을 의사와 논의해 조정하기도 하고,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한다. 현재 노인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호주, 파나마,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총 8개국이며, 약 1,700여 명의 약사가 인증을 받았다.

세계 최초 노인전문약사인증 실행

미국은 노인 전문 약사 인증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다. 1997년 CCGP(The Commission for Certification in Geriatric Pharmacy)가 설립돼 49개 주에서 인증받은 약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약료 전문약사들은 예방접종과 약물치료 관리서비스,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의료팀과 협력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약사회는 물론 정부까지 힘을 합쳐 노인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의약대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 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16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전문약사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잠재적 약물 오류가 뚜렷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철저한 인증 관리 시스템

캐나다는 약사들에게 노인전문약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해 인증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해야 노인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약 200여 명이 노인전문약사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 아델레이드, 멜버른에서는 정부에서 급여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면허를 소지한 약사가 가정방문을 해 의약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150여 명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 시험으로 인증을 받은 후 다시 PSAB(Specialists Accreditation Board of Singapore)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거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노인전문약사로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레지던트 1년을 약물요법(pharmacotherapy) 분야에서 그 후 1년은 전문 세부 영역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거나 관련 전문 영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전문약사 양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생에 한번쯤 오토바이 여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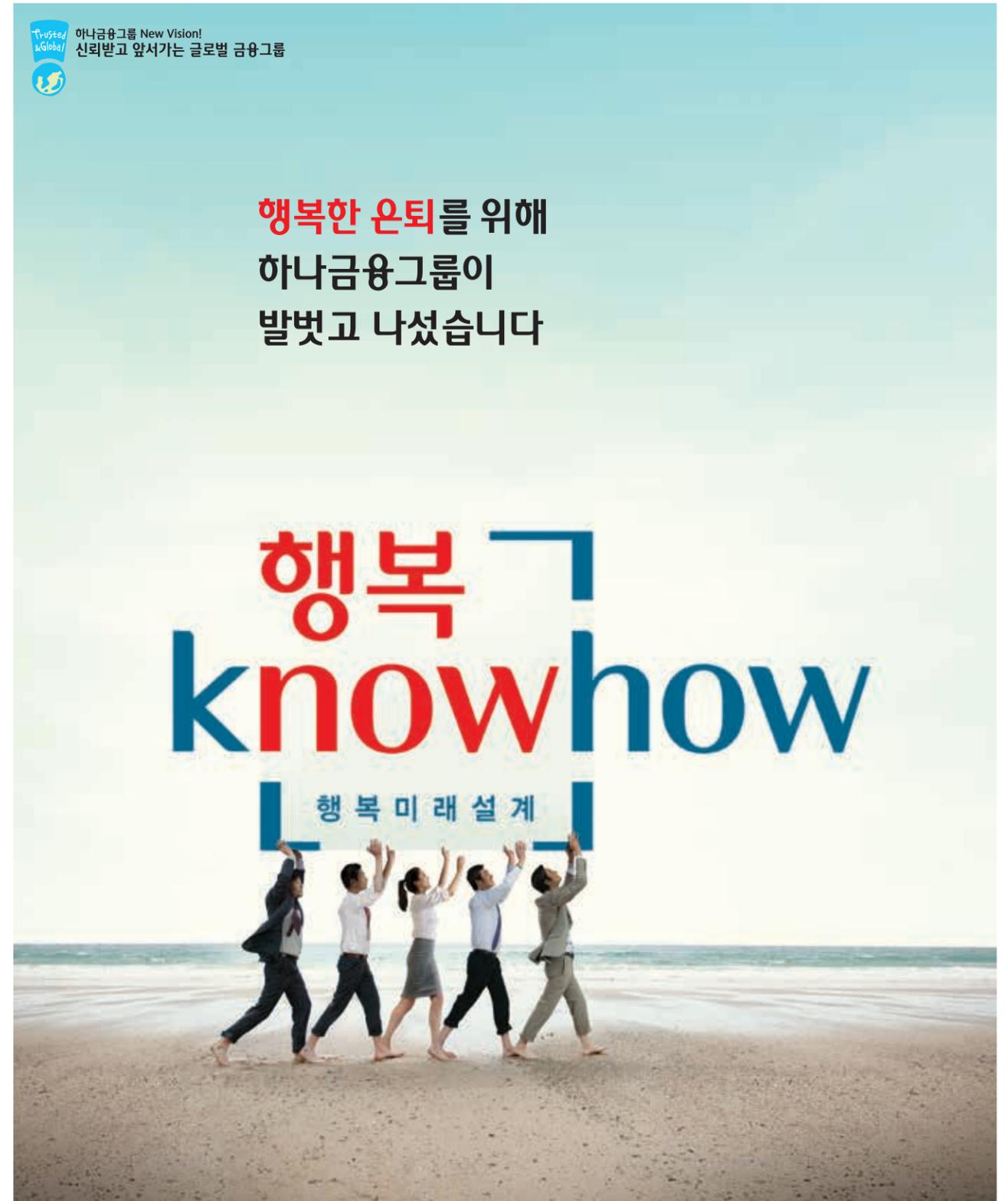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의사를 꿈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를 졸업했으나 우연히 친구인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모터사이클로 남미 대륙을 여행하면서 의사에서 혁명가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가는 모습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오토바이 여행을 꿈꾼다. '세상을 바꾸는 한 남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을 주제로 한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현실로 만들어 보자.

오토바이 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안전을 준수한다면 오토바이가 주는 매력을 거부하기 어렵다. 초보 입문 라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오토바이를 타느냐 하는 것. 1박 정도 근거리 여행을 간다면 스쿠터로도 OK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한계에 부딪힌다. 장거리 이동시 주행 피로도가 높고, 다양한 노면환경에 대응할 수 없어 제약이 많다.

오토바이의 매력은 역시 기동성이다. 자전거로 몇 날 며칠 걸리는 거리를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고,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구석구석 누빌 수 있다. 물론 한 겨울의 라이딩은 매서운 칼바람을 각오해야 한다. 초보자가 오토바이로 멋지게 바람을 가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가 제주도다. 제주도는 수많은 오토바이 렌트 업체가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는 이들이 많다.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렌트가 되는데 단, 50cc 이하만 가능하다. 오토바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있다면 일단 작은 도전을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신감이 좀 붙었을 때 본격적인 오토바이 라이더로서의 첫 걸음을 떼어보면 어떨까. 인생의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초보 라이더를 위한 준비 리스트**
- **헬멧** : 오토바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풀페이스, 하프페이스, 오프페이스 헬멧 등이 있다.
 - **재킷** : 오토바이 사고 시 손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닿는 곳이 팔꿈치와 어깨 등 관절 부위다. 바이크 재킷은 팔꿈치, 어깨, 척추 등에 보호대가 있어 주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다.
 - **장갑** : 손은 찰과상과 골절에 가장 취약한 부위다. 손등과 손바닥에 보호대가 있는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한다. 숏글러브, 롱글러브, 방한글러브가 있다.
 - **라이딩 진** :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다. 프로텍터가 있어 무릎과 골반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 **부츠** : 숏부츠와 롱부츠가 있다. 발가락과 복숭아뼈 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 **방한장비** : 방한장비 없이는 겨울철 라이딩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방한 토시와 무릎 워머가 있고, 스쿠터라면 윈드 스크린을 장착해 칼바람을 막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